



1. 김연우



서울예술대학교 보컬전공 출신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호원대학교의 교수로서 활약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실용음악계의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불리는 김연우. 빅마마의 이영현, SG워너비 이석훈,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제아, 임정희, 지영선, 장우람등 많은 가수들을 지도하며 가수들의 선생님이로 불리는 김교수, 김연우.

공군 군악대에서 군복무를 한 후 1995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가수로 데뷔를 했다. 1996년 토이의 2집에 참여 하면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얻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 앨범에서 [사랑, 집착&중독]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 는 걸] 등에참여 하게 되었고 특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 는 걸]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8년 김연우는 1집 '그대 곁에 나밖에'를 발표하였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9년 1월 발매된 토이 4집 <A Night in Seoul>의 수록곡인 [여전히 아름다운지]가 많은 인기를 끌면서 뒤이어 나오는 정규 2집, 3집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과 방송활동등을 활발히 하며, 많은 대중들과 소통을 하며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의 아티스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 심재원



이글파이브, 블랙비트 출신의 안무디렉터이자 연출가 심재원. 1998년 16세의 나이에 이글파이브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2년 블랙비트라는 그룹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블랙비트의 활동 이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2009년 같은 SM엔터테인먼트 후배 가수인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의 안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안무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블랙비트 소속인 황상훈과 함께 SM 엔터테인먼트내에서 안무가로 활동 하였는데, 그의 활약들 중 재미있는 일화로 소녀시대-태티서 의 미니 1집 타이틀곡 'Twinkle'에서의 자체발광 오징어외계인 춤은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이글파이브의 히트곡 '오징어외계인'이 모티브가 안무로 구성했다고 한다.

심재원은 직접 곡을 만들고 안무도 직접 짜고 공연 연출도 하는등 안무가 뿐만 아니라 연출가로서도 활약한다. 실제로 그는 2013년부터 스키조의 기타리스트 주성민, DJ 플래시 핑거, 랍퍼 MQ, 사운드 엔지니어 구종필과 일렉트로니카 프로젝트 그룹인 비트버거를 결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연출가로서의 활동으로는 2014년 12월에 열린 동방신기의 'T1STORY' 투어를 시작으로 콘서트 연출가로도 활동하기 시작한다.

3. 장진영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음악과 출신 가수이자 꽃미남 보컬 트레이너로 유명한 장진영. 심재원과 같은 그룹 블랙비트로 2002년 블랙비트 1집 앨범 [The First Performance]로 데뷔했다. 활동을 잠시 쉬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던 중 블랙비트의 [헤어지기 전]을 작곡한 작곡가 김형규의 제안으로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연습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슈퍼주니어 성민,은혁과 샤이니, 소녀시대의 보컬을 담당하며 본격적으로 트레이너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다.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던 중 발성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던 중 스티비원더와 마이클 잭슨의 보컬트레이너로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 셰스릭스에게 발성을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르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 KBS '언니들의 슬램덩크' 와 Mnet '아이돌 학교'에서 꽃미남 보컬 트레이너로서 활약하며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그는 트레이너로서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의 활동도 꾸준히 해오는데, 솔로활동으로 2011년 [시간이 흐른 뒤] [Vocalist] 를 공개하였고 By 진성 / 더 블랙 / 퀘스천 이라는 팀으로 지속적으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도 이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SM 스테이션2를 통해 바버렛츠와 함께 '스트레인저스 러브(Stranger's Love)'를 공개 하기도 했다.